

제3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싱가포르 경영대학원(부교)	성명	다자카와 하이나 Matyukabova Ailing	학년	4	생년월일	1990년 4월 25일
----	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

선물이라는, .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?
내 생각엔 선물은 누군가를 기쁘게
만들기 위하여 준비한 물건이나 이
벤트이다. 사랑하는 보통 선물은 줄 때
자기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생각하는
가족. 친구.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건
데 그걸 왜 주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
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사람에게
나의 마음이 어떤지 보여 주고 싶어 하
기 때문이다. 내 인생에 선물이 많았고
그 선물들이 무엇이냐는 것을 누구한테
받았는지를 묻는 기억 못난 것이다.
하지만 나에게 제인 소중한 선물인 첫
선물이 무엇인지 내가 천 년을 살아도
잊지 않을 것이다. 이 첫 선물은 바르나
의 어머니가 나를 낳으신 것이다. 내가
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
도 어머니께서 날 아끼시고 어게
있을 동안
잡으시고 지켜주시고 결국 평소에
으셨다. 이것이야 바르나의 첫 선물이다.
그래서 엄마한테 많이 감사하고 항상
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. 비록 지금
떨어져 있어도 매일 매일 전화하고 잘
지내우고 아픈데癒나고 잘 먹
나고 공부하고 학업 물어모신다. 나는 그 것

제3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싱가포르 경영 대학	성명	대짜꾸보바 아테나 Metyakubog	학년	4	생년월일	1990년 4월 25일
----	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

Omina

문 에 짜 등 보 때 도 앞 앞 고 '엎 마 , 나 는 이
제 이 름 이 아 니 예 요' 라고 말 하 고 씬 을
때 도 앞 앞 다 . 지 금 생 각 해 보 면 이 것 때 문
에 부 끄 쥘 고 어 머 니 한 테 미 안 한 마 음 이
든 다 . 어 버 니 가 격 정 하 시 고 자 각 전 화
하 시 는 데 나 는 자 식 으 로 써 그 것 을 이 해
하 지 못 하 는 데 도 앞 다 . 하 지 만 엎 마 가
하 락 가 도 전 화 안 하 서 면 이 상 한 는 감
과 못 가 부 족 할 다 는 느 껴 이 든 다 . 그 래
서 엎 마 보 고 씬 어 지 고 나 가 변 제 전
화 를 하 고 왜 전 화 안 하 시 나 고 써 진
다 . 엎 만 웃 으 면 서 엎 마 가 어 제 전 화 했
잖 아 라고 말 하 신 다 . 나 의 엎 마 가 나
인 생 에 가 장 소 중 한 사 람 이 시 며 가 장
소 중 한 선 물 이 다 .
선 물 은 꼭 누 으 로 보 고 손 으 로 펼 수
있 는 것 이 아 니 고 써 고 비 싹 것이 전
혀 중 요 하 지 않 다 고 생 각 관 다 . 나 기 억
속 에 나 가 받은 선 물 들 생 각 해 보 면 어
것 속 에 지 금 막 퍼 물 리 는 선 물 이 작 년
에 받은 생 일 선 물 이 다 . 생 일 날 전 에 는
스 트 레 스 많 이 받아 가 지 고 외 롭 고 슬 프
다 . 그 때 서 많 이 울 았 다 . 그 때 생 일 날 에
도 슬 픔 거 라 고 생 각 했 는 데 그 게 아 니
였 다 . 생 일 날 직 전 에 갑작스 럽게 다

제3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성가포즈경영대학원	성명	민재국호바아아미나 Majra Kubova Amirna	학년	4	생년월일	1990년 4월 25일
----	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

켄트 에 왔 는 나 의 초 등 학 교 . 중 등 학 교 .
 고 등 학 교 , 대 학 교 그 리 고 덩 나 리 친 구 들
 가 지 서 로 잔 모 르 면 서 도 한 근 테 에
 모 여 서 나 의 생 일 파 티 를 준 버 한 것 이 었
 다 . 나 의 가 장 전 한 친 구 가 이 상 하 게
 나 를 깜 감 한 방 으 로 데 려 가 고 목 목 열
 자 타 자 나 를 기 다 리 고 앞 앞 단 친 구 들 이
 '쇼 즈 프 라 이 즈 !' 가 고 했 고 나 는 너 무
 놀 라 다 . 갑 독 받아 서 눈 물 이 내 많 들
 지 많 고 졸 졸 흐 르 고 , . . 내 가 외 로
 운 사 람 이 아 니 가 이 세 상 에 서 친 구 가
 제 연 많 고 행 복 전 사 람 이 라 는 생 각 이
 들 었 다 . 지 금 그 때 를 생 각 하 면 모 쥘 게
 미 소 가 지 어 지 고 마 음 이 따 뜻 해 지 다 .
 그 친 구 들 보 고 싶 은 데 그 런 기 회 가 자
 주 오 지 는 많 는 다 . 친 구 들 이 타 주 켄트 에
 있 거 나 자 기 일 하 면 서 때 안 바빠 서
 모 서 친 구 들 연 국 모 기 가 힘 들 어 쥔 다 .
 근 데 나 가 나 에 게 소 중 한 사 람 들 에 게
 무 논 서 물 을 줘 준 까 ? 생 각 이 안 나 네
 , . 아 ! 많 다 ! 어 제 내 가 아 는 모
 빠 생 일 이 었 는 데 그 오빠 의 생 일 은 쥔
 기 기 위 해 연 니 오빠 들 이 강 선 물 로 목
 줄 까 하 고 한 침 생 각 했 다 , 생 각 해 보 니 가
 그 오빠 가 너 무 나 도 피 아 느 해 어 고

제3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한글 백일장

학교	성거포은 경여대학	성명	타자카모바 이이나 Matsukubova	학년	4	생년월일	1998년 4월 28일
----	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

Amina

500
400
300
200
100

선 이 라 는 것 이 있 다 . 그 래 서 선 물 로 키 보
 드 사 기 로 했 다 . 그 걸 사 로 악 기 파 는
 가 게 로 갖 는 데 거 기 문 단 아 있 고
 어 렵 게 라 도 가 게 주 인 전 화 한 호 참 아
 서 변 각 해 고 한 서 간 등 안 버 맞 으 면 서
 밖 에 서 기 다 리 고 있 있 다 . 결국 세 공 !
 주 인 이 와서 가 게 를 열 어 풀 고 키 보 드
 도 몇 개 보 여 줬 다 . 키 보 드 가 지 고 게
 이 코 드 만 들 고 악 속 한 데 로 가 서 다 른
 친구 들 이 강 오 바 를 기 다 려 다 . 선 물 은
 둘 때 오 바 갑 짜 늘 앓 다 . 키 보 드 를 연 마
 나 잣 고 생 앓 고 그 것 모 다 항상 자 기
 마음 은 아 아 주 서 고 많 다 고 애 기 했 다 .
 오 바 생 일 재미 있 게 보 내고 점 비 앞 는
 데 오 바 한 테 또 고 많 다 는 메 서 지 가 문
 것 이 있 다 . 그 래 서 나 도 기 별 지 . 왜 기 뵈
 는 지 네 잔 모 르 겠 지 만 아 마 도 그 날
 오 바 가 기 버려 서 나 도 기 버려 한 것 같 다-
 . 만 는 것 보 다 죽 는 것 이 더 낫 다 는
 말이 앞 는 데 그 말 이 맞 나 모 다 는 생
 각 이 들 앓 다 . 난 앞 으 로 도 항 상 친구 들
 은 기 뵈 게 해 주 고 원 다 . 그러 기 위 해
 자 꾸 작 은 선 물 이 나 이 벤 트 나 좋은
 만 로 그 돈 은 행복 하 게 만 들 도 록 많이
모 느 려 람 것 이 다 . 그 들 이 웃 으 며 나 도

제3회 중앙아시아 성군 한글 백일장

학교	성가포교 경영대학	성명	안자카부아 아미나 Matyakubova Amina	학년	4	생년월일	1990년 4월 25일
----	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

못 고 그 돌 이 물 년 나 오 물 기 태 무 어 다
 . 나 는 행 복 을 주 는 아 비 나 가 되 고 싶
 다 . 백 일 간 끝 나 고 나 면 첫 번 째 로 하 는
 것 이 얼마나 전 화 하 는 것 이 다 . 영 마 는
 나 에 게 면 저 나 까 .

500

400

300

200

100